

2015 - 2월호

KB 중국금융시장정보



이슈진단

- 중국 외자은행 / HSBC의 촌진은행(村鎮銀行) 활용 고금리 대출 사업 전략(서봉교, 동덕여대 중국학과 교수)
- 중국 증시 / 2015년 중국 주식시장과 주요 이슈 - 중국 주식시장 3,000 시대의 개막(조용준, 하나대투증권 리서치센터장)

시장점검

- 외환시장 / 향후 위안화 對달러 가치 소폭 절하 예상
- 부동산시장 / 1월, 전월대비 주택가격 9개월만에 상승 반전

금융산업

- 은행 / 인민은행, 지급준비율 인하로 대출 증대 효과 기대
- 보험 / 중국 안방(安邦)보험, 동양생명 인수 추진 중

- ◇ 연구보고서 요약 / 한중간 교역 구조 변화와 시사점
- ◇ 지난호 정보 (2013-5월호~2015-01월호)

HSBC의 촌진은행(村鎮銀行) 활용 고금리 대출 사업 전략



서봉교 동덕여대 중국학과 교수

중국 은행신용에 대한 초과수요

최근 수년간 중국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많은 투자기회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 은행들은 주로 대형기업, 국유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대출을 주로 하고 있고, 민영기업 특히 중소형 민영 기업들은 은행 대출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

예를 들면 전체 금융기관 대출에서 대형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6월말 기준으로 35.5%로 지난 수년간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은행 대출자금에 대한 초과수요는 중국 민영기업들, 중소형 기업들이 높은 이자율을 지불하고라도 대출을 받고자 하는 초과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표1] 전체 기업대출에서 기업유형별 비중 추이(억 위안, %)

	전체 기업대출	대형기업	대형 비중(%)	중형기업	중형 비중(%)	소형기업	소형 비중(%)
2009年	275487	118447	43.0	98650	35.8	58390	21.2
2010年	317758	134200	42.2	98026	30.8	85533	26.9
2011年*	333132	126953	38.1	116640	35.0	89539	26.9
2012年*	385100	141298	36.7	134719	35.0	108700	28.2
2013年*	428322	155994	36.4	149269	34.8	122500	28.6
2014年*	483620	171750	35.5	169270	35.0	141700	29.3

자료: CEIC

*2011, 2012, 2013, 2014년은 모두 6월말 기준

고금리 대출 新 금융기관

이러한 중국 내 신용에 대한 초과수요는 고금리 대출을 목표로 하는 新금융기관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고금리 대출은 크게 민영 중소기업

업에 대한 대출과 개인 소매대출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의 고금리 대출 신 금융기관은 소액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소액대출회사(小额贷款公司)가 있다. 소액대출회사는 첫째, 예금을 수신하지 않고 대출 범위는 소재지역내에서로 제한하며 단기 소액 담보대출을 취급한다. 둘째, 민간자본으로 설립된 여신전문 금융회사이지만 공상기업으로 분류되어 중국 은감위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셋째, 대출 이자율은 기준 법정 이자율의 4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넷째, 주로 농민과 소형 또는 영세(小微)기업의 자금부족 문제 완화를 목표로 한다.

두 번째 유형의 고금리 대출 신 금융기관은 촌진은행(村镇银行)이 있다. 촌진은행(村镇银行)은 현지 농가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예금과 대출같은 은행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기구이다. 이 제도는 원래 기존에 농촌금융시장이 신용사(信用社), 우체국 저축(邮政储蓄), 중국농업은행 지사(分支机构)에 의해 독점되고 있어 서비스의 품질이 낮고 농민의 대출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Baidu 百科). 촌진은행이나 소액대출회사의 경우 대출이자율이 법정 대출이자율의 4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계 금융사들의 참여도 허용하고 있다.

[표2] 중국 소액대출 회사 수와 대출 금액 추이 (개, 억 위안)

	2010.6	2011.6	2012.6	2013.6	2014.6
회사 수 (개)	1940	3366	5267	7086	8394
대출금액(억위안)	1248.9	2874.7	4892.6	7043.5	88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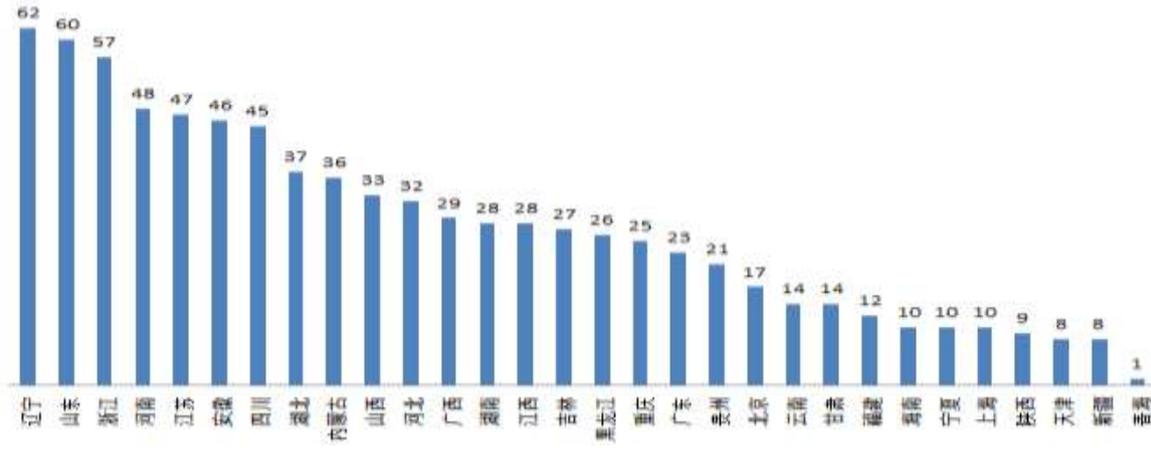
자료: CEIC

이에 따라 최초의 촌진은행인 仪陇惠民村镇银行이 2007년 쓰촨성에서 설립되었고, 2014년 5월 기준 전국적으로 823개의 촌진은행이 설립, 운영 중이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지역별로는 랴오닝(62개), 산둥(60개), 저장(57개)에 가장 많이 설립되어 있다.

“촌진은행관리 잠정규정(村镇银行管理暂行规定)”에 따르면 지(地)급 단위에 설립된 촌진은행의 경우 자본금이 5,0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하는 반면 현(县)

급 단위에 설립된 촌진은행의 경우 자본금이 300만 위안(약 5억3천 원), 향(乡)이나 진(镇)급단위에 설립된 촌진은행의 경우 자본금이 100만 위안(약 1억 7천 원)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림1] 중국 촌진은행 수 지역별 현황(개)



자료: 中國村鎮銀行 사이트

특히 촌진은행은 발기인 제도를 두고 있고, 최대주주를 기존상업은행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반드시 기존의 실적이 양호한 상업은행이 최대주주이자 주요 발기은행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제1원칙이 있다. 또한 반드시 감독관리 조건에 부합하고 경영이 규범화되어야 한다.

[표3] 중국 촌진은행의 요건 개요

구분	내용
성격	국내외 금융기관 및 개인이 출자한 은행
최소 자본금	현금 300 만 위안, 향금 100 만 위안
발기인, 출자인	▲1 개 이상의 은행 포함, ▲최대주주는 은행, ▲외국계 금융기관이 출자할 경우 최근 1년 연말총자산 10억 달러 이상, ▲2개년도 연속 이익 등
출자 비용	▲최대주주인 은행의 지분비율 20% 이상, ▲개인은 10% 이하
동일인 대출 비율	자본금의 5% 이하
기타	설립지역에서만 대출 가능
대출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의 0.9~4.0 배 사이

자료: 최의현, Qi ShengZhu(2010), 중국 농촌금융의 개혁에 관한 연구: 신형 농촌금융기구를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제11집 2호

HSBC 촌진은행의 사례

외국계 은행이 설립한 최초의 촌진은행은 글로벌 금융그룹인 HSBC가 설립한 정두HSBC촌진은행(曾都汇丰村镇银行)이다. 이 HSBC 촌진은행은 2007년 12월 설립되었고, 농업관련 대출이나 수출형 기업의 해외 결제 서비스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8년 3월 3,000만 위안의 자금을 증자하여 자본금이 4,000만 위안에 달한다. 영업 방식은 일반인들의 예금을 유치하고, 단기 및 중기 대출, 국내외 결제업무, 어음 대출,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등 매우 다양하다.

HSBC는 정두 촌진은행 이외에도 중국 각 지역에 촌진은행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현재 후베이, 충칭, 푸젠, 베이징, 광둥, 다롄, 후난, 산둥(湖北, 重庆, 福建, 北京, 广东, 大连, 湖南, 山东) 등 8개 성에 12개 지점과 25개 서비스 센터를 설립하여 외국계 은행 중 최대의 영업망을 확보하였다. HSBC의 모든 촌진은행은 HSBC 중국은행이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로 설립되었다.

[표4] 중국 촌진은행 관련 주요 사건

시기	내용
2006년 12월	은감위에서 농촌지역에 농촌은행 이외의 은행 금융기관 설립 허용하는 정책 도입
2007년 3월	최초의 촌진은행이 6개 시범 지역(省)에서 설립
2007년 10월	은감위에서 시범지역을 6개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
2007년 12월	최초의 외국계 은행인 HSBC의 촌진은행(曾都汇丰村镇银行) 설립
2008년 8월	농업은행이 발기인으로 후베이와 네이멍구에 동시에 촌진은행을 설립
2008년 9월	민성은행이 발기인으로 평조우(彭州)에 촌진은행 설립
2008년 10월	전국에 설립된 촌진은행의 수가 20개를 넘음
2011년 5월	전국에 설립된 촌진은행의 수가 536개에 달함
2012년 9월	전국에 설립된 촌진은행의 수가 799개로 증가

자료: Baidu 百科

HSBC는 중국내 영업 거점을 빠르게 확대하고,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서 수익성을 제고하고, 중국내 HSBC의 브랜드 네임을 알리는 등 선발자의 이득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중국법인들이 중국 내 영업망 확대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HSBC 촌진은행의 사례는 많은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2015년 중국 주식시장과 주요 이슈¹ - 중국 주식시장 3,000 시대의 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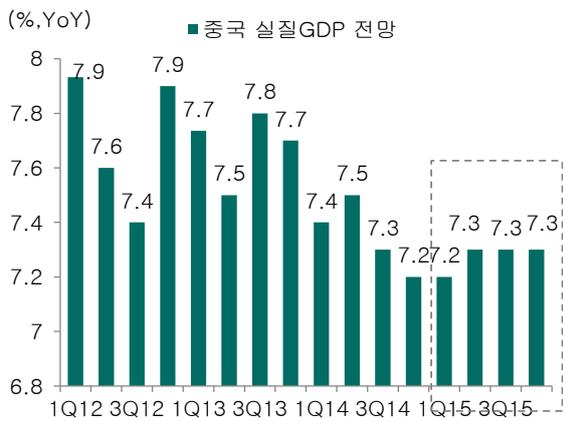
조용준 하나대투증권 리서치센터장



□ 2015년에도 중국 증시와 실물 경제의 디커플링 국면은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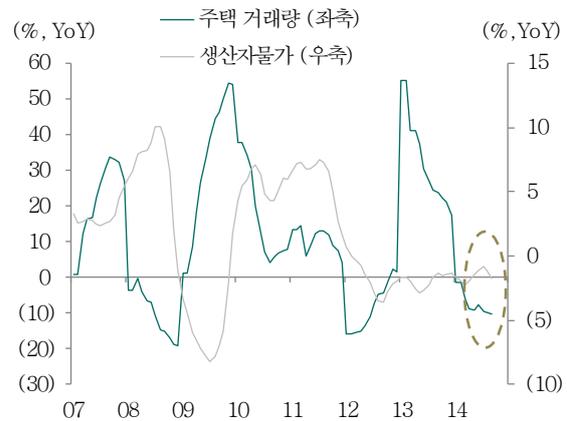
- 중국 정부의 성장 목표 하향 예상 및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2015년 중국 경제 성장 둔화는 지속될 전망
- 2015년 중국 경제는 투자 부진과 공급과잉 환경이 경기 반등을 제약할 것으로 보이나, 통화완화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과 수출과 서비스 소비의 점진적인 회복 등으로 7% 초반대의 연착륙 전망

[그림2] 연간 7.3% 성장: 상반기 둔화 하반기 안정



자료: CEIC, 하나대투증권

[그림3] 투자 불확실성과 공급과잉 압력 지속



자료: CEIC, 하나대투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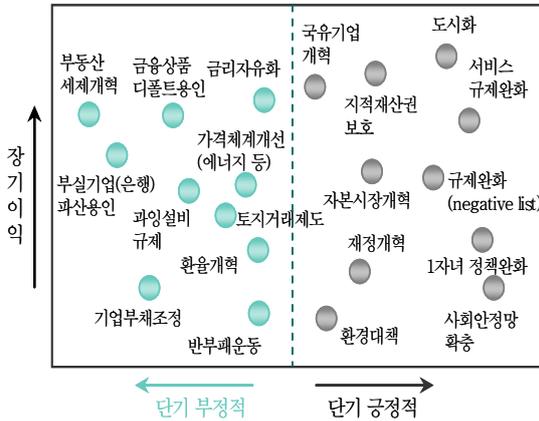
□ 금융 개혁 추진 및 투자 자금의 주식시장 복귀 등으로 주가 3,000시대 개막

- 펀드멘탈 둔화 불구 금융개혁(시장개방, 제도개선)과 수급개선(예금이탈 자금 유입)이 지수 상승을 견인할 전망
- 금융개혁은 시장개방, 그림자금융 양성화와 주식시장 부양, 제도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투자 심리 회복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

¹ 상기 내용은 지난 01월 21일(수) 경영연구소 주최 “2015년 제1회 KB중국CoP”에서 발표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KB중국금융연구센터 홈페이지(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중국금융연구센터→KB중국금융포럼)를 참조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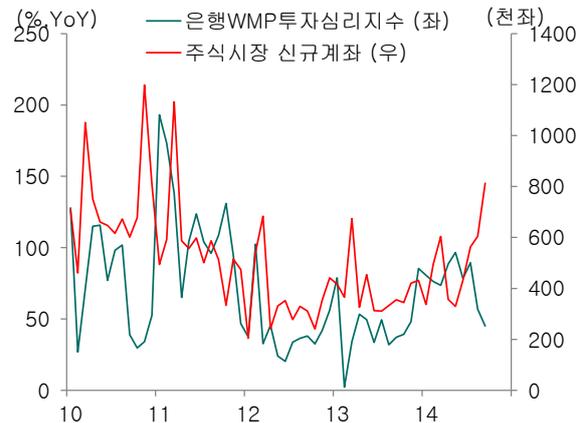
- 중국 본토 증시의 개인투자자 비중은 80%에 육박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변화(예금/부동산→은행 WMPs→주식시장)가 증시 수급에 결정적 역할을 할 전망

[그림4] 금융개혁은 신정부 정책의 핵심



자료: 하나대투증권

[그림5] WMPs 투자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환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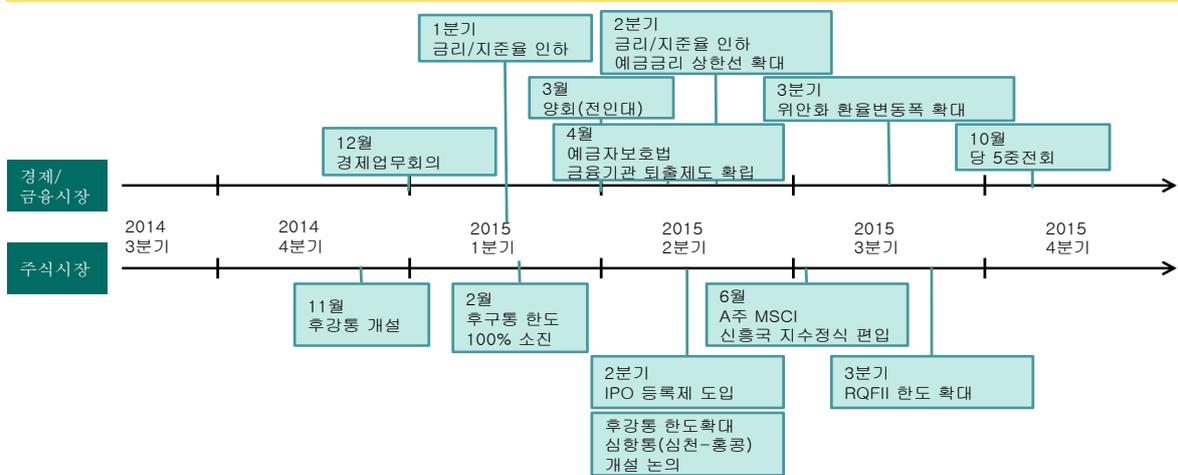


자료: CEIC, 하나대투증권

□ 2015년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경제 및 금융 이벤트 줄이올 전망

- 2015년 1~3분기 금리/지준을 인하 예상 및 금리자유화 가속화 전망
- 호항통/RQFII 한도 증액, MSCI지수 A주편입, 심항통 개설 등 시장개방 이벤트 지속
- IPO 등록제 시행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나 공급물량 대비 자금유입이 압도적일 가능성

[그림6] 2014~2015년 중국 주식시장 주요 예상 이벤트



자료: 하나대투증권

향후 위안화 對달러 가치 소폭 절하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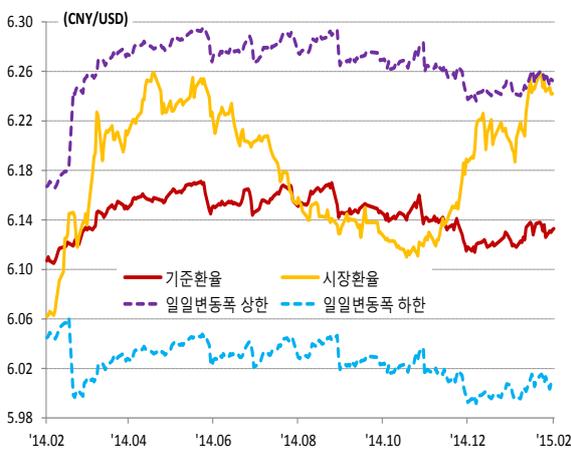
□ 1월, 위안화 對달러 시장 환율 상승폭 확대, 기준환율은 안정적인 변동 지속

- 작년 12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달러당 6.19~6.22 위안 사이에서 박스권 등락을 지속하던 위안화 對달러 시장환율은 1월 들어 0.50% 상승
- 특히 1월 26일 위안화 對달러 환율은 달러당 6.254위안을 기록하여 일중 변동폭 상한(6.256위안)에 근접하기도 하였음
- 이에 반해 인민은행 공시 위안화 對달러 기준환율은 동기간 0.21% 상승에 그치며 달러당 6.12~6.13위안 수준에서 안정적인 변동 지속

□ 인민은행의 위안화 가치 안정 노력 등으로 향후 소폭의 절하 전망

- 최근의 위안화 對달러 시장환율 상승은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 ECB의 양적 완화 시행 등으로 인한 시장의 위안화 절하 기대가 반영된 것
- 이에 대해 인민은행은 위안화 가치 안정 및 급격한 절하로 인한 자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환율을 하향 공시하여 절상을 유도하고 있음
- 한편 일각에서는 1월 수출이 부진(-3.3%, yoy)을 보임에 따라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가 위안화 절하를 용인할 것이란 전망이 대두
-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위안화 절하폭이 적고 다른 국가 통화의 가치 하락폭이 커 위안화 절하가 수출 촉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분석하고 향후 위안화는 소폭 절하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

[그림] 위안화 對달러 환율 변화 추이



자료: CEIC

[표5] 주요 IB 향후 위안화 환율 전망(공시환율 기준)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Barclays	6.30	6.35	6.38	6.40
JPM	6.28	6.32	6.23	6.25
BNP	6.08	6.12	6.10	6.20
GS	6.19	6.20	6.20	6.20
Citi	6.23	6.26	6.29	6.27
BoAML	6.10	6.15	6.27	6.27
HSBC	6.30	6.32	6.33	6.34
SC	6.25	6.28	6.19	6.12
Nomura	6.08	6.11	6.12	6.12
평균	6.20	6.23	6.23	6.24

자료: 해당 기관

*전망일: 2월 3일~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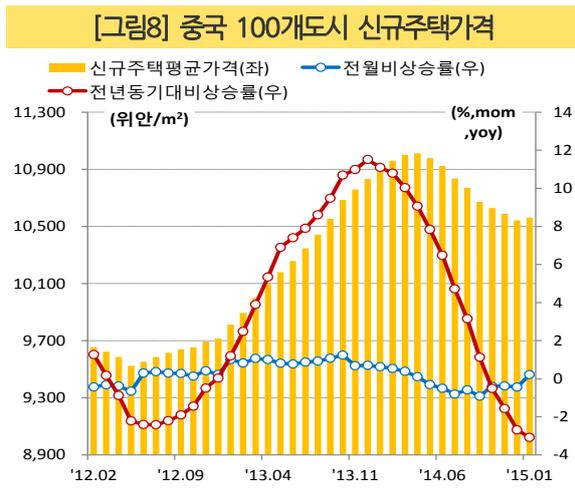
1월, 전월대비 주택가격 9개월만에 상승 반전

□ 1월, 중국 100개 도시 신규주택가격 9개월만에 전월대비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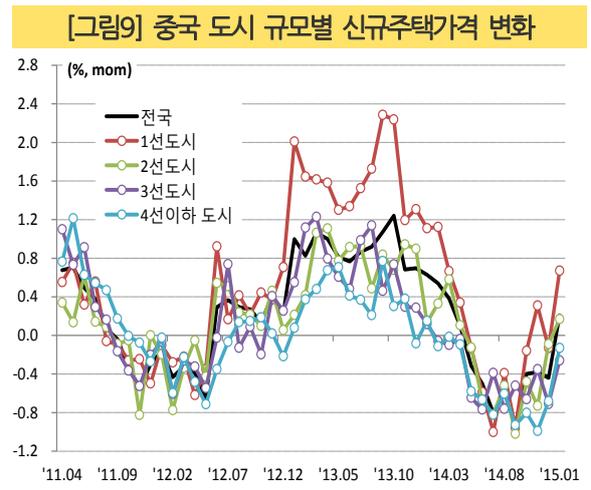
- 1월, 중국 100개 도시 신규주택 평균가격은 m²당 10,564 위안으로 전월 대비 0.21% 상승하면서 9개월만에 상승 반전
- 전월대비 가격이 상승한 도시는 전월보다 14곳이 증가한 44개이며, 가격이 하락한 도시는 전월보다 14곳 감소한 56개로 나타남
- 도시 규모별 주택가격은 1선도시²(12월:-0.13%→1월:+0.67)와 2선도시(12월:-0.09%→1월:+0.17%)가 전월대비 상승 반전하였고, 3선도시(12월:-0.71%→1월:-0.26%)와 4선도시(12월:-0.68%→1월:-0.13%)는 전월대비 가격 하락폭이 축소

□ 당분간 도시 규모별로 차별화된 가격 변동 국면이 지속될 전망

- 수요 증대, 공급 감소로 인해 단기적으로 주요 도시 주택 재고 압박이 완화되고 있는 1선도시와 일부 2선도시는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서 가격이 안정적으로 상승할 전망
- 그러나 대다수의 3,4선도시는 공급 과잉 및 재고 소진 압박 등으로 인해 당분간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



자료: 중국지수연구원



자료: 중국지수연구원

² 중국 1선 도시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톈진; 2선 도시는 5개 1선 도시 외에 GDP 2,000억 위안, 일인당 GDP 1.4만 위안, 상주 인구 100만 명, 면적 100km², 주택판매가격 3,000위안/m² 이상인 도시; 3선 이하 도시는 상기 기준에 미달하는 도시를 지칭

中 인민은행, 지급준비율 인하로 대출 증대 효과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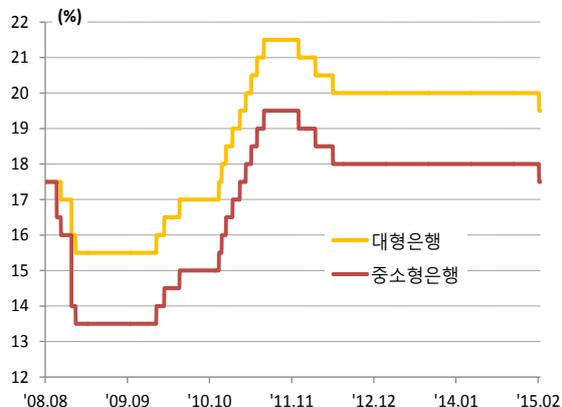
□ 중국인민은행,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0.5%p 인하한다고 발표(2/4일)

- 이는 2012년 5월에 0.5%p 인하 이후 33개월만의 조치로, 모든 금융기관의 위안화 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2월 5일부터 0.5%p 인하한다고 발표
- 특히 三農(농민, 농촌,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농업발전은행의 경우 지급준비율을 4%p 추가 인하
- 또한 영세 및 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이 높은 도시상업은행 및 농촌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을 0.5%p 추가로 인하

□ 향후에도 기준율 및 기준금리 인하 등 추가 통화완화 조치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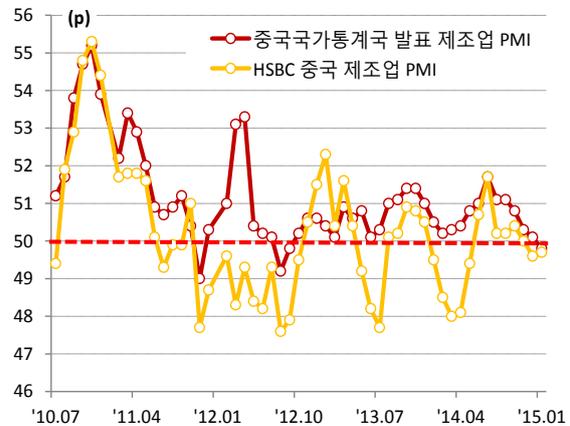
- 금번 기준율 인하는 급격한 경기 둔화 방지와 명절 자금 수요에 대한 대응 및 三農/중소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
- 전문가들은 금번의 기준율 전면 인하조치가 대체로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상당한 대출 증대 및 자금조달비용 경감 효과를 예상
- 경기둔화 지속이 예상되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낮은 수준의 물가 지속 등으로 통화 완화 여지가 확대됨에 따라 상반기에 기준율 및 기준금리 인하 등 추가적 완화조치가 시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
- 특히 기준율의 경우 현재 평균 19.0%로 여전히 과도하게 높고 대내외 금리차 확대 등 금리 조정에 따른 부작용도 적어 우선적으로 고려될 가능성

[그림10] 중국 금융기관 규모별 기준율 추이



자료: CEIC

[그림11]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지수 추이



자료: CEIC, Bloomberg

중국 안방(安邦)보험, 동양생명 인수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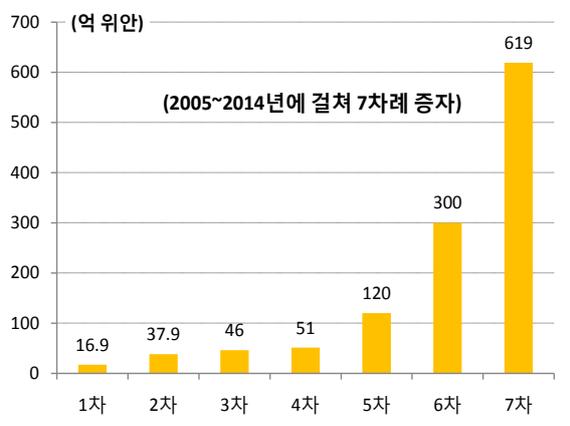
□ 中 안방(安邦)보험, 중국 보험사 최초로 국내 보험사 인수 추진

- 안방보험은 동양생명의 최대주주 보고펀드와 동양생명 지분 57.5%(619만株) 매매에 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안방보험은 2014년 말 총 자산 7,000억 위안, 등록자본금 619억 위안으로 펀드, 은행, 보험, 증권, 투자컨설팅, 증권중개, 금융 등의 영업허가를 보유
- 또한 안방보험은 민성(民生), 자오상(招商) 등 은행을 비롯 진띠(金地), 완커(萬科) 등 부동산 회사와 제약 및 건축 회사 등 9개 상장社 지분을 보유
- 지난해 우리은행 인수에도 참여하여 시장의 주목을 받은바 있으며, 최근 뉴욕 맨하튼의 월도프아스토리아 호텔, 벨기에 보험사 FIDEA, 벨기에 델타로이드 은행 등 세계 각국의 자산을 인수하며 막강한 자금력을 과시

□ 중국 자본의 국내 금융시장 잠식 우려 vs. 금융시장 글로벌화의 단면

- 최근 일본 오릭스 그룹의 현대증권 인수, 유안타 그룹의 유안타 증권 설립 등 외국 자본의 국내 진출이 눈에 띄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중국 자본의 국내 금융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를 표시
-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 금융회사의 한국 진출 또한 글로벌화의 단면이라며 해외 자본의 국내 금융시장 진출에 따라 국내 자본 역시 해외 금융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는 반론 대두

[그림12] 안방(安邦)그룹의 증자에 따른 자본금 변화



자료: 鳳凰網

[그림13] 안방(安邦)그룹 조직 구조



자료: 鳳凰網, 뉴스핌

한중간 교역구조 변화와 시사점³

□ 대중 수출 감소, 여행수지 對중국 흑자 급증

- 한국의 대중 수출은 2011년까지 두 자리 수 증가율을 유지하다가 2012년 들어 0.1% 증가에 그쳤고 2013년에는 8.6%로 다소 회복되었다가 2014년 1~11월 중에는 0.6% 감소
- 최근 2년간 한국의 여행수지 흑자 대상국은 중국, 일본이 유일한 가운데 2013년 한국의 대중국 여행수입은 57.5억 달러로 1998년의 2.8억 달러에 비해 20배 이상 급증

□ 한국의 對中 투자는 제조업 위주, 중국의 對한국 투자는 서비스업에 집중

- 한국의 대중국 제조업 직접투자는 1992년의 1.16억 달러에서 2013년에는 45.09억 달러로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8.4%에 달하고 있음
- 중국의 대한국 서비스업 직접투자는 1992년의 69만 달러에서 2014년에는 10.44억 달러로 급증하여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7.8%에 달함
- 최근 2~3년간 중국 투자자의 한국 주식 및 채권시장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였고, 한국의 대중국 자본시장 투자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 감소, 중국 가계 소득 증가 등이 변화의 배경

- 중국의 對세계 수출 증가율 둔화 및 대중 중간재 수출 둔화 등이 한국의 대중 수출이 감소하였고, 중국 가계의 소득 증가로 중국인의 해외 여행이 급증하면서 한국 방문 중국 관광객이 증가
- 또한 중국 외환보유 비용 부담 및 중국 기관투자자의 신흥시장 투자 비중 확대 등은 중국 투자자의 한국 자본시장 투자 증가의 배경

□ 대중 수출기업 부실률 상승 및 대중 무역금융 수요 감소 등의 영향 예상

- 국내 대중 수출 기업의 경영난 심화에 따른 부실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대중 수출 기업들의 경영난 지속 시 송금, 신용장 등 대중 수출 관련 금융 수요가 감소하는 등 은행의 무역금융 영업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

³ 자세한 내용은 KB경영연구소 보고서→경영정보리포트 「한중간 교역구조 변화와 시사점(경영정보리포트 2015-04호)」를 참조하십시오.

2013-05월호 (창간호)

-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안화 사용 큰 폭으로 증가
- 차이나머니,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급증
- 중국 그림자금융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증대
- 부동산 가격 반등으로 경기부양 어려움 가중
- 지방정부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증대

2014-03월호

- 경기하방 리스크 방지를 위한 부양조치 시행 가능성 증대
- 향후 지역별 차별화된 부동산 안정화 대책 유지 전망
- 상업은행 유동성 리스크 감독관리 강화를 위한 신규정 도입
- 위안화 일일 변동폭 $\pm 1\% \rightarrow \pm 2\%$ 로 확대
- 위안화 글로벌 결제 통화 순위, 스위스 프랑 제치고 7위로 상승

2014-04월호

- 위안화 절하로 TRF 매입 중국 기업 손실 확대 우려
- 토지판매량 급감 등으로 주택가격 둔화 지속
- 중국 국무원, 지방은행에 대한 지급준비율 인하 계획 발표
- 위안화 對달러 가치 절하 추세 지속
- 호주, 지난 1년간 위안화 결제 규모 대폭 확대

2014-05월호

- 중국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성장률 하락폭 확대 우려
-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단했던 IPO를 재개
- 중국인민은행, 통화정책 미세조정 언급
- 경상수지 호전 등으로 향후 위안화 절하폭 제한 전망
- 싱가포르, 위안화 역외 시장 지위 상승

2014-06월호

- 유동성 경색 발생 1년 경과, 재발 가능성 감소
- 주택가격 감소세로 전환되며 부동산 경기 위축 지속
- 중국인민은행, 지준율 인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
- 위안화 對달러화 가치 절하폭 전월대비 축소
- 중국 VC & PE 투자시장의 트렌드와 시사점

2014-07월호

- 위안화 국제화 어디까지 왔나?
- 反부패 캠페인 강화로 투자 위축 우려
- 위안화 對달러 가치 절하폭 전월대비 축소 지속
- 위안화, 중국(홍콩)과의 거래에서 제2의 결제 통화로 부상
- 일부 지방정부, 주택구매 활성화 조치 시행
- 中은감위, 예대비율 산정 기준 완화

2014-08월호

- 중국 상반기 경제 현황과 하반기 전망
- 한국 위안화 허브 추진 동향과 시사점
- 위안화 對달러 시장환율 강세 반전
- 중국 주택가격 3개월 연속 전월대비 감소 폭 확대
- 중국인민은행, 하반기에도 선택적 긴축완화 지속 전망
- 상하이-홍콩간 주식 상호투자 개시 임박

2014-09월호

- 중국 국유기업 개혁과 증시 투자 기회
- 위안화 對달러 환율 소폭 상승, 전월에 이어 상승폭 축소
- 중국 주택가격 4개월 연속 전월대비 하락
- 2014년 상반기 중국 상업은행 부실대출 규모·비율 동반 상승
- 최근 중국 증시 강세장 전환 기대 고조

2014-10월호

- 최근 대중 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 위안화 對달러 환율, 박스권 등락 지속
- 9월, 중국 주택가격 전월대비 하락폭 확대
- 상하이 FTZ 內 외자은행 진출 활발
- 국내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개시

2014-11월호

- 세계 2위의 무역금융통화로 부상한 위안화와 위안화 역외센터 위상 제고 방안
- 최근 중국 증시 강세장 전환 기대에 대한 평가
- 위안화 對달러 환율, 연초대비 절하폭 축소 지속
- 10월, 中 주택가격 23개월만에 전년동기대비 하락
- 3분기 인민은행 통화정책보고서, 통화정책 연속성 유지 강조
- 17일, 후강통 거래 개시

2014-12월호

- 국내 중국인 관광객 증가의 기대효과 및 시사점
- 최근의 중국 금융회사 M&A 동향과 시사점
- 위안화 對달러 시장 환율, 가파른 상승세 시현
- 11월, 중국 1선도시 전월대비 주택가격 상승세 전환
- 중국 예금보험제도 시행 임박
- RP 거래 담보물 회사채 등급 기준 강화로 주가 급락

2015-01월호

- 전환기의 중국 부동산 시장과 리스크 평가
- 2014년 위안화 가치, 페그 제도 폐지 이후 처음으로 절하
- 12월, 중국 주택가격 전월대비 하락폭 확대
- 예대비율 산정 기준 완화로 시중은행 대출 여력 확대
- 선강통(深港通, 선전-홍콩간 주식거래 허용 제도) 계획 중

※ KB중국금융시장정보 2013-06월호~2014-02월호는 www.kbfg.com/kbresearch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중국금융연구센터

<http://www.kbfng.com/kbresearch>

연구위원 이정진, jungjin.lee@kbfng.com

발행인 윤종규

편집인 조경엽

발행처 KB금융그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호 KB국민은행여의도본점

대표전화 02-2073-7114

발행일 2015년 02월 13일